

나의 사랑하는 생활

기술표준정보과 정성자

내 중심의 사고는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내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
을 잊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오직 나만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면서 내 안
에 잠재되어 있는 나를 잘 알고 살아가려 하는 것일
까?

항상 바로 내가 숨쉬는 이 시간 내 안에서 내 영혼
이 함께 하고 깨닫고 있음을 내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타인과 비교하면 나를 그들 위에 올려놓고 싶어 하
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사랑함과 이해하기 보다는
시기와 성냄, 편견들로 먼저 일어나는 나의 부조리함
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국어책에서 수필이라는 장르의 '나의 사랑하는 생
활'의 피천득님의 글이 있다.

나에게 있어 이 글은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 가운
데 공감하는 작은 여유를 느끼며 본인이 행복에 대
한 것을 체온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글이다.

작가 피천득은 자연의 내음과 시간을 쫓기지 않는
평범한 일상속에서의 자아를 사랑하려고 본인의 글에

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몇가지의 내용이 내 마음에 와 닿아
아래에 옮겨 보려고 한다.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 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십분지 일이라도 남겨
서 자유와 한기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잔디를 밟기 좋아한다.

젖은 시세를 밟기 좋아한다. 고무창 댄 구두를 신
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칼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나이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 웃음
을 나는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 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는 내용으로
가족과 본인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생활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글이라
고 생각해 보았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부터? 어디에까지 이르렀

는가?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삶의 반복되는 일상 시간들 안에서 더러는 지치기도 하고 더러는 다른 좋은 것들을 탄핵하기 위해 제 자신을 위해 한것도 많다.

인간은 자유 의지라는 것이 있다.

현실 사회 속에서 법과 도덕은 존재하지만, 무의미하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다.

과학적 이론으로 보기엔 이미 선택된 것들은 준비된 것들로 인해 가정하고 간주하여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결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예사다.

이미 인간의 삶은 그렇게 짜여져 있던것은 아닌지? 라는 의미와 함께 내 운명은 그렇게 받아 들여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과 위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매한 인간들이 모르고 지나칠 뿐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다.

나는 인생은 평지가 아니라 굴복이라는 것인가?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여러번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높낮이가 심하고 때로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도 있는 신속 자갈길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혼란스럽게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무언가가 어느 날 사라졌을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것들..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있어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을 나는 너무도 바보처럼 잊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노라고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더러는 며칠간 더러는 여러날들을 똑 같은 결심과 실행과 반복으로 그렇게 매꾸어 왔을 것이다.

나에게 많이 흔들리게 했던 부족한 내 양심으로 나는 나를 가식적인 삶에 응출한 철부지로 살았던 것 같기도 했다.

나에겐 힘들고 좌절도 많이 했지만 병원과 나의 부주의로 이일저일도 많았던 일들은 현실에서 받아 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은 과정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많은 내 삶의 3/1년은 이웃과 더불어 살며 희노애락이 함께 하였으리라 보고 조금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보다 배로 큰 수확을 얻었다는 것을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한다.

정말 착한사람, 늘 진실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내 중심의 사고는 평범한 가운데에서도 늘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고자 한다.

아무리 물질만능 주의, 모든 기계화 되어 만연되는 그런 삶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본다.

많이 방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내면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하루 늘 넓은 마음의 시야를 가지고 여유롭

고 자유로운 시간으로 나를 다스리며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회인이 되고 싶다.

간디가 그 많은 식민지 하의 인도 국민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고, 테레사 수녀는 그 작고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인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다.

시골학교의 한 스승이 제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예수는 우리의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해야 했으며, 고통을 져야 하는 여정의 삶을 살기도 하였다.

우리는 한 사람을 소홀히 하는 누를 범할 때가 있다.

나의 격려가, 나의 한 마디의 위로가, 나의 권면(勸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분명 변화는 많은 사람의 힘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힘도 결국 한 사람의 힘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나 한 사람!

그 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고 내 자신의 삶의 변화와 노력이 비롯될 때 비로서 본인 자아의 성숙의 참된 귀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조금씩 나라는 자아를 찾기 위해 그것을 채워야 할 그릇이 되기 위해 조금더 깊게 조금 더 내 일상생활에서의 소중함을 인지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늘 현실에 집착을 과감히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욕심이 많아서이며, 미련이 많은 성격 탓에 더욱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가지 못해서 일 것이다.

나는 나에 대한 충실함과 일상의 삶의 체험을 통해 반성하며 과정에 충실하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심삼일로 중간에 그만 두는 나의 생활들로 나는 많은 것을 회의에 빠진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극복하며 나의 생활들을 인정하고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가족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내 중심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은 피천득님의 글처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퇴색되지 않는 삶 안에서 스스로를 밝게 채 창조하는 작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은 내 스스로의 나를 온전히 겸손되어 살아감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

